

합동참모부 '장기무기 체계' 세미나 개최

국군 합동참모본부는 7월 25일 합참회의실에서 국방과학연구소, 국방연구원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천년대 초반의 국방과학기술 및 무기체계의 변화추세를 조망하는 '장기 무기체계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했다.

합참은 이날 세미나에서 *유도 무기 *방공 *화력 *기동 *항공 등을 토의하고 27일에는 *정보 *전자전. 지휘 *통제·통신 *전자. 함정·화생방 등을 다루었다.

합참은 세미나 토론 결과를 중·장기 무기체계 기획 과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군수품 입찰적격심사제 구매, 시설등에 실시

국방부는 8월 5일 군수품 조달을 위한 경쟁입찰시 참여업체의 제조능력과 재무상태 등을 기준으로 낙찰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적격심사제를 이날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10억원 이상의 물품구입 또는 용역사업과 1백억원 이상의 시설공사 경쟁입

찰시 참여업체의 제조시공능력, 재무상태, 계약이행 실적, 입찰가격 등을 심사, 낙찰자를 선정하게 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러나 10억원 이하의 군수품이라도 덤핑입찰이 드러나면 부적격 판정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심사제에 따라 최근 5년 이내 군수품 결함으로 장비파손 또는 인명피해를 일으킨 경우와 부도 및 파산 우려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업체도 사실상 낙찰에서 배제된다.

또 부당업체로 관계당국에 의해 제재를 받은 경우 일정점수를 감점하며, 품질관리, 기술개발, 환경관리 등에 기여한 업체는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적격심사의 세부기준은 이행 실적(20점), 제조능력(40점), 재무상태(10점) 및 입찰가격(30점) 등 1백점 만점제이며, 조달본부측은 입찰결과 예정이 이하 최저가격으로 응찰하고 7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중에서 낙찰자를 결정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FSX 양산, 엔진이 쟁점

항공자위대 차기지원 전투기

(FSX)의 미-일 공동개발문제에서 일본측이 미국기업으로부터 개발단계에서 공급받고 있는 엔진의 라이선스 생산문제가 양산화 단계에서 최대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미 의회 회계감사원이 8월 12일까지 정리한 이 보고서는 공동개발은 일본측에만 이익이 크다고 하면서 기술이전평가 태스크포스(전문조사단)를 미국정부내에 설치하도록 촉구하고 있어, 양산화를 놓고 FSX가 새삼스레 미-일간에 정치문제화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 보고서는 생산단계에서 약 40%로 되어 있는 미국측 작업 분담비율이 환율변동 등으로 달성하기 곤란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40%의 시장점유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일본기업이 개발단계에서 담당하고 있는 몇 가지 부분을 미국기업이 조립할 필요가 있다"는 미국정부 관계자의 메모를 소개하며 미국측 담당 부분의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한편 일본측은 개발단계에서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사제 엔진을 공급받고 있는데, 이 보고서는 "FSX 생산에 책임을 지고 있는 방위청 고위관리 등은 일본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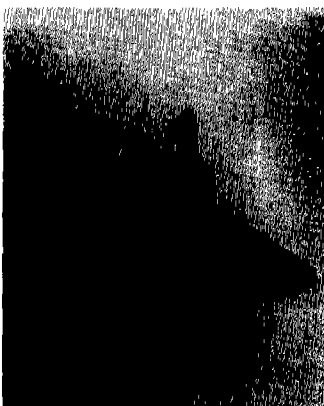
엔진의 라이선스 생산을 통해 최대의 시장점유율을 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이 FSX를 엔진기술의 향상과 국가목표인 항공엔진의 독자개발에 유용하게 활용하려 하기 때문이다"고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어, 미국정부 고위관리가 엔진과 관련된 문제가 생산양해각서를 합의할 때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F-22 EMD 제조시작 록히드, 보잉 등과 공동으로 9기 예정

미국의 록히드 마틴과 보잉 양사는 97년 5월에 첫비행을 예정한 차세대 전투기인 F-22 EMD형 1호기(제조번호 4001호)의 제조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EMD는 기술·제조·개발 시



협기로 모두 9기를 만들 예정이며 4001~4003호기는 공력시험용이고 4004~4007호기는 공중성능 시험에 쓰이며 나머지 2기는 복좌기로 만들 예정이라고 한다.

미국이 조사에 착수 FS-X의 일본기술에 이전가능성 등 검토

미국 국방총성은 방금 미·일 양국 공동으로 개발중인 차기 지원전투기 FS-X에 쓰이는 전장관련 일본의 독자기술에 대하여 대미기술 이전의 가능성을 조사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이를 위해 미국방성측은 전파 흡수재와 종합 전자전 시스템에 관한 조사단을 일본에 보내 기술의 내용 이전료, 이전에 관한 세 부사항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한다.

일본 경제단체연합회는 앞서 방위용 장비의 미·일 공동개발과 생산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대미 부품수출금지의 해제를 요구하면서 무기수출 3원칙의 재검토를 요망했다.

일본에 대한 무기수출 3원칙은 무기관련 기술이면 미국에도 수출할 수 없기 때문에 종합전자전 시스템과 같은 장비는 미국에 수출할 수 없게 되며 여기에는 기

술공여, 장치·기기·부품 등이 모두 포함된다.

전파흡수재에 대한 미국측 조사단이 와서 이미 지난 6월 6일부터 3일간 일본 방위청을 비롯하여 FS-X의 간사기업인 미쓰비시중공업을 방문하여 실무자로부터 기술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

한편 종합 전자전 시스템에 관해서는 가을에 미국 조사단이 일본에 와서 이 기술의 내용과 미국산 장비품과의 비교 그리고 민생용품으로 전용할 가능성 등에 대하여 조사할 것이라고 한다.

전파흡수재는 스텔스성을 높이려는 소재로 주날개의 앞부분 가상자리등에 쓰이는 것으로 미쓰비시 레이온, 도오레 등이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

또한 두가지 이외에 고성능 레이더에 관해서는 개발중인 미쓰비시전기와 미국기업이 무기수출 3원칙에 저촉하지 않는 민생용의 형태로 미국기업과 기술이전이 교섭중이며 전파흡수재도 군수·민수 양용으로 해석되던 급수품으로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해·공 협동작전연습 일자위대, 북방기지에서

일본 방위청은 6~7월 사이에

북해도 등지에서 항공자위대의 전투기를 해상자위대가 지휘하는 등 해·공간의 지휘계통 협동에 대한 연습을 실시했다.

일본 방위청은 냉전 종식후의 자위대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 검토하는 과정에서 육·해·공 자위대간의 보다 긴밀한 협동작전의 수행 등 효과적이고 고능률의 부대 운용방안을 모색하는 일환으로 위와 같은 해·공 협동 연습을 했다고 한다. 일본 방위대는 지금까지 실시한 연습에서는 육군, 해군, 공군 등 각 자위대가 별개로 지휘하는 형식으로 작전 연습을 하여 이번처럼 양군이 상대방의 지휘를 받는 형식은 처음이었다고 한다.

이렇게 하면 작전이 보다 효율적일뿐 아니라 정보도 공유할 수 있는 잇점이 있다고 한다.

■ NATO 조기경보기 미제 중고기 구입, A340에서 B707로 변경

NATO는 공동으로 도합 18기의 STARS(감시-목표 공격용 레이다 장치)를 구입할 예정으로 동 장치 탑재 항공기로 A340-200 기종을 검토하고 있었으나 최근 동행기가 비싸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고 군사 소식통이 전했다.

A340-200기종 보다 미국 보잉사의 707-320B/C 중고기를 이용할 경우 약 20억달러가 절약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 미공군이 보유하는 E-8C형에 준한 B707 계열의 기체로 결정될듯 하다는 것인데 NATO는 이미 조기 관제경보기 18기와 훈련·지원용으로 3기 등의 B707기를 쓰고 있어 정비면 등에서 여러가지로 편리할 것으로 보고 있다.

■ 러시아형에서 이탈 중국, 차세대 전투기서

중국은 차세대 전투기로 91년부터 개발하고 있는 FC-1(FC는

Fighting-China)형에 있어 다목적 전투기로 개발하는데 그 외양이 점차 러시아 모양에서 벗어나 미국의 F-16 등과 비슷한 외양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중국의 이 전투기 개발에는 러시아의 미코얀설계국(MIG생산업체)과 파키스탄의 3자협동으로 되어있는데 주날개, 수평 꼬리날개 등이 미국의 F-16과 아주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공기 흡입구는 주날개 밑쪽 동체에 간소한 모양으로 2개를 가지고 있으며 엔진은 러시아의 크리모프 RD-33터보팬 엔진을 고마력화한 RD-93을 장착한다는 것이다.

